

광주시 임시 국제선 추진... 군공항 이전 갈등 재점화

시민 불편 해소·관광업계 지원책 무안군 "임시취항 실효성 떨어져" 도, 대선공약 민·군공항 통합이전 "정부 적극중재, 지역갈등 봉합을"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도 관심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공식화하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안공항 정상화 로드맵이 지연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국제선 기능 부활을 공식화하자 무안군과 지역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나트랑, 중국 옌지, 장자제 등 4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무안공항 장기 폐쇄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당초 국토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하기로 했지만, 공항 폐쇄기간이 오는 7월까지 연장되며 로드맵 발표 역시 지연됐다"며 "지역민 불편과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져 임시취항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제선 임시취항이 한시적인 조치이며,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군과 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이 무안군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 국제선 임시취항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지역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위한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설치 및 무안공항 시설 이전 등을 고려하면 무안공항 재개항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무안범대위)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

사가 대선 공약과제로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제시한 것은 10만 무안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무안 범대위 관계자는 "작년 10월 강기정 시장이 '함흥차사', '양심불량' 과 같은 언행을 통해 무안군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밝힌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광주시는 지난 2020년 민간공항 이전 결정을 유보했을 당시부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기적인 태도만 관철하며 지역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전남도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남도는 차기 대선 공약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상 속에 민·군공항 통합 이전도 포함돼 있어 무안군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무안군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대안을 요구했으나, 진전된 논의는 없는 상태다.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알립니다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을 걷자 5월24일 오전 8시30분

전남일보가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를 갖습니다.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문빈정사 광장을 출발해 자율 산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무등산의 추억'을 담아갈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명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 일시 2025년 5월24일(토) 오전8시30분
- 장소 문빈정사 앞 광장(집결)
- 신청기간 2025년 4월 22일(화)~5월19일(월)
- 인원 300명 선착순 접수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의 062-519-0730~1
- 추최주관 전남일보, 전일엔컬스
-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 담양군,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



시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관리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2일 앞둔 21일 광주시선관위 직원들이 1층 사무실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김영배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전생을 주님·교회에 헌신"

'가난한 자의 벗'...청빈한 삶 실천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었던 프란치스코(사진)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오전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페렐 추기경은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심각한 폐렴 때문



에 입원했다가 회복해 교황청으로 돌아온 뒤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다.

그는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빈하고 소탈한 행보로 즉위 직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허름한 구두를 신고 순금 십자가 대신 철제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소형차에 몸을 싣는 겸손하고 서민적인 교황의 모습에 세계인들은 감동했다. 연합뉴스

제 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Ah May, The May We Meet Again

2025.5.15.531

추모식 5.17(토) 9:30 광주 18만우암시	시민낭만 5.17(토) 13:00 광주 18만우암시	전남·동지대회 5.17(토) 15:00 광주 18만우암시	민주항쟁대영진 5.17(토) 16:00 광주 18만우암시	인아제 5.17(토) 18:00 광주 18만우암시	대항쟁대회 5.17(토) 21:30 5.18(일) 09:00 광주 18만우암시
민주항쟁대회 5.18(일) 14:00 5.18(일) 19:00 5.18(일) 19:00 5.18(일) 19:00 5.18(일) 19:00 5.18(일) 19:00	2025년 5·18민중항쟁 50주년 기념행사 5.18(일) 19:00 5.18(일) 19:00 5.18(일) 19:00 5.18(일) 19:00 5.18(일) 19:00 5.18(일) 19:00	민주항쟁기념식 5.20(목) 15:00 무등산기암-광남로	학술대회 5.22(토)~23(일) 전남대학교	5·18청소년문화제 5.24(토) 10:00 광주 18만우암시	부활절 5.27(토) 5.18(일) 09:00

세계인이 온다
2025 광주 방문의 해

광주에 왔다가

즐거움이 온다! 축제가 온다!

왔다

민주가 온다! 빛이 온다!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25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

2025.05.15.(목) - 05.17.(토) 김대중컨벤션센터
개회식: 5.15.(목) 14:00

주최 | UNHCR | 유네스코 | UN Women | 유네스코 세계인권도시포럼 | 주관 | 광주광역시 | 후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 UN Women | 유네스코 세계인권도시포럼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기조발제
최재현 인화여자대학교 예과대학 교수 전체회의 발제
자인표 작가 포서로 '연대가 우리가 같은 발을 바라본다' 북토크콘서트